

광주 학생 76% 사교육... 스트레스 1위 '학업'

광주교육청 '교육 종합 실태조사' 살펴보니

1인당 사교육비 32만원... 가장 많이 받는 과목은 수학
한달 평균 3.4권 독서... 교사 40% "학생에 교권 침해"

'초·중·고등학생 10명 중 7명은 사교육을 받고 일주일에 11시간 이상 학원을 다니며 책은 한달에 3권을 읽는다.'

광주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의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관내 65개교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8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 종합 실태조사'를 통해서다.

교육 종합 실태조사 결과로 보면 광주 전체 학생들의 75.8%는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일주일에 평균 11.7시간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가 82.9%로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82.3%, 고등학교 62.2% 등으로 조사됐다. 중학교의 경우 수학 과목이 86.3%, 영어가 81.2%로 파악됐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31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자녀 두명을 둔 가정이라면 사교육비로 월평균 63만원을 쓰는 셈으로, 통계청이 지난 2014년 조사한 전국 월평균 사교육비 24만2000원보다 많았다.

학교별로는 일반고가 36만9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33만1000원, 초등학교 27만4000원, 특성화가 24만원으로 나타났다.

한 달 평균 평균 독서량은 3.4권으로, 2014년(3.0권)에 견줘 조금 늘어났으나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전국 평균 독서량(9.4권)에는 못 미쳤다. 전체 학생의 59.5%는 매일 아침식사를 하지만 13.8%는 아침을 거르고 학교에 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생들이 겪는 스트레스로 47.2%가 '학업문제'를 꼽았고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이 37.3%에 달했고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인가'라는 질문에 전체의 60.1%는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도 나왔다. 우선, "학생에 의해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전체의 40.2%에 달했고 35.8%는 "학부모에 의해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전체 교사들의 49.0%만 '교권이 잘 보호되고 있다'고 응답, 교권 보호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활동은 '학부모 총회(교육과정 안내 포함)'가 43.5%가 가장 많았고 '학교행사'가 26.0%였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평균 수업시간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한달 독서량 변화 (단위:권)



수확의 계절 광주 북구청 공원녹지와 직원들이 11일 오전 광주시 북구 중흥동 거리에서 가을철 거리 약취의 주범인 은행나무 열매를 털어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북구, 범죄피해자 돕는다

지자체 첫 조례 제정... 피해자 7명에 생계비

A(72) 할머니는 한 달 전 날벼락 같은 일을 당했다. 지난달 16일 밤 11시께 광주시 북구 한 도로에서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다가 술에 만취한 젊은 남성에게 '문지마 폭행'을 당한 것이다. A 할머니는 아랫니가 대부분 뺏기는 피해를 입었지만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당장 갈아야 할 빛은 많고, 피해를 보상받을 길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광주시 북구 한 복지관에서 봉사 활동을 하던 B(43)씨도 복지관을 이용하던 정신질환자에게 느닷없이 상해 피해를 당했다. B씨는 사건 이후 심리상담기관의 상담을 받기도 했다. 당시 정신질환자는 B씨의 자동차도 파손했다.

광주 북구청과 북부경찰서가 A 할머니와 B씨 같이 범죄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지난해 광주지역 자치구 최초로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처음으로 도움이

손길을 전했다. 조례에는 '구정장이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고, 대상은 중복 지원이 없는 피해자, 본인 과실이 없는 피해자,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 등으로 제한했다.

북구의회는 이 조례를 근거로 지난 5월 5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북부경찰서 피해자 전담 경찰은 몇 개월에 걸친 방문 면담 등을 통해 지원 심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지난 7일에는 북구청에서 '북구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A 할머니 등 7명을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했고, 이들에게는 각각 40만~100만원 사이의 피해자 지원금을 전달했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과 진정성 있는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6, 해질 18:01, 달출 15:34, 달짐 01:53

감기조심하세요
평년보다 기온이 낮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다.

◇ 지역별 날씨 (°C)

| | | | | | |
|----|------|-------|-----|------|-------|
| 광주 | 구름많음 | 13/22 | 보성 | 구름많음 | 11/22 |
| 목포 | 구름많음 | 14/21 | 순천 | 구름많음 | 13/23 |
| 여수 | 구름많음 | 16/22 | 영광 | 구름많음 | 11/21 |
| 나주 | 구름많음 | 11/22 | 진도 | 구름많음 | 13/20 |
| 완도 | 구름많음 | 14/21 | 전주 | 구름많음 | 11/21 |
| 구례 | 구름많음 | 10/22 | 군산 | 구름많음 | 11/20 |
| 강진 | 구름많음 | 12/22 | 남원 | 구름많음 | 10/21 |
| 해남 | 구름많음 | 12/21 | 축산도 | 구름많음 | 16/18 |
| 장성 | 구름많음 | 11/21 | | | |

◇ 바다 날씨

| 지역 | 방향 | 오전 | | 오후 | |
|--------|--------|---------|---------|---------|---------|
| | | 풍향 | 파고(m) | 풍향 | 파고(m) |
| 서해남부 | 앞바다 | 북~북동 | 0.5~1.5 | 북~북동 | 0.5~1.0 |
| | 면바다 | 북~북동 | 1.0~2.0 | 북~북동 | 1.0~2.0 |
| 남해서부 | 앞바다 | 북~북동 | 0.5~1.0 | 북~북동 | 0.5~1.0 |
| | 면바다(동) | 북~북동 | 1.0~2.0 | 북~북동 | 1.0~1.5 |
| 면바다(서) | 북~북동 | 1.0~2.0 | 북~북동 | 1.0~1.5 | |
| | 북~북동 | 1.0~2.0 | 북~북동 | 1.0~1.5 | |

◇ 물때

| 목포 | 간조 | | 만조 | |
|----|-------|-------|-------|-------|
| | 04:14 | 10:26 | 16:13 | 23:12 |
| 여수 | 00:06 | 05:56 | 11:48 | 18:36 |

◇ 주간 날씨

| 날짜 | 13(목) | 14(금) | 15(토) | 16(일) | 17(월) | 18(화) | 19(수) |
|----|-------|-------|-------|-------|-------|-------|-------|
| 날씨 | ☁ | ☀ | ☀ | ☁ | ☀ | ☀ | ☀ |
| 날짜 | 12/22 | 11/25 | 10/25 | 15/23 | 13/23 | 12/23 | 11/22 |

인권침해 60% 집단보호시설서 발생

광주인권사무소 9월까지 683건 진정

광주와 전남·북,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 10건 중 6건이 다수 인보호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모두 683건으로 이 가운데 59%(373건)가 정신보건시설과 같은 다수인보호시설, 25%(155건)가 교도소 등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조사범위가 확대된 사건 중에서는 장애인 차별진정사건이 50건(7.3%)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공공기관의 인권침해 39건(5.7%), 각급학교의 인권침해 36건(5.2%), 지자체의 인권

침해 29건(4.2%)의 순으로 조사됐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지난 3월 장애인 인권단체의 지속적인 요구로 조사권이 확대된 이후 조사관 1명을 늘리고 조사 전담팀을 꾸려 활동한 결과, 장애인 관련 진정사건의 처리 비율이 조사관 발동 첫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2005년 10월 개소한 광주인권사무소가 올해 9월까지 처리한 상담, 안내·민원 사건은 모두 4만2805건에 달했다. 이중 조사를 필요로 하는 진정사건은 4707건이었으며, 해마다 700여건이 접수되는 진정사건의 85% 이상이 각하되거나 기각됐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무등산 도토리·버섯 무단 채취하면 벌금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가을철 공원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다음달 13일까지 전담반을 편성해 임산물 채취·휴연·취사·셋길 출입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도토리·버섯 등을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휴연·취사 등 무질서행위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처분받는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관계자는 "건강한 탐방문화를 만들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EAGLEEYED
이글아이드 골프화

2969 (25%가 할인)

가볍다. 편하다!!

ADD FG2

방수, 접지력 우수, 친환경 소재, 100% 국내 자체 생산, 철저한 사후관리

www.eagleeyed.co.kr
전화 상담 032)523-4075
직영점 인천골프백화점 032)521-3075
가까운 매장에서 구매 하시면 됩니다.